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돕기' 물품 전달

- 시설장비사무소, 청원군 가덕면 삼항리마을 찾아 -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운) 시설장비사무소는 추석을 맞이하여 지난 9월 25일 충북 청원군 가덕면 삼항리 마을의 독거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족 등 30가구를 위해 "사랑의 쌀과 생활용품"을 전달하였다. 이번 추석맞이 이웃사랑 나눔 봉사활동은 청원군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각 가정을 방문하여 따뜻한 온정의 물품을 전달하고 일사일촌의 한 식구로서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실천했다. 기술본부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역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나눔 경영 구현을 기본이념으로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시설 활용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 본격 추진

- 사업주관자로 동부건설(주) 컨소시엄 선정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강근식)는 9월 18일 철도시설 67개소[역사 승강장 지붕(운영 중 2개소, 설계 중 또는 설계예정 58개소), 차량기지(3개소) 지붕 및 주차장, 사도장(4개소)]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의 주관자로 동부건설(주)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사업주관자 공모에 단독으로 신청한 동부건설(주) 컨소시엄에 대해 외부위원 8명을 포함한 전체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획, 재무능력, 경영능력 등 3개 분야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동부건설(주) 컨소시엄을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의 주관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주) 컨소시엄은 철도시설 67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생산한 전력(17MW)을 한국전력과 에너지관리공단에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20년이며 공단은 이 기간 동안 약 65억원의 철도시설 점용료를 받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된 전력은 약 6천여 가구(4인 가구 기준)의 연간 사용량에 해당하며, 연간 약 410만kg의 유류 절약, 약 1만3천톤의 이산화탄소가 감소, 여의도 3배 면적인 854만㎡의 산림조성 효과가 예상된다.

공단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은 "철도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구현에 앞장서고 신규 점용료 수입 창출로 공단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사업본부 김원형 기자)



부산진역 철도부지 민자개발 사업 추진

- 업무시설로 재탄생, 일부는 공단 영남본부 사옥 활용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강근식)는 부산진역 인근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역 부근 2600㎡의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민간사업으로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건물의 일부는 영남본부 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25일 사업자 모집 공고에 이어 9월 20일 개발관련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대창기업(주) 컨소시엄을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어 10월에는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사업으로 160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철도부지 30년 임대를 통해 70억원의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연 성공률 100%에 도전한다!

- 동구보건소와 함께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건강한 삶 누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9월 5일부터 대전 동구보건소와 연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이동 금연클리닉에서는 동구보건소 상담사가 내방해 상담 결과에 따라 금연보조제를 지원하고, 전화 및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임직원의 금연성공을 돕는다.

제1차 금연 클리닉에는 모두 26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한 개피의 담배가 5분 30초씩 소중한 생명을 단축시킨다"며 "클리닉 참여자 전원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독려해 '금연 사업장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협력사 '생산성경영시스템(PMS) 인증' 적극 지원

- 정부지원금 제외한 나머지 비용 전액 부담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철도건설사업의 품질·안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5개사를 선정해 '생산성경영시스템(PMS : Productivity Management System)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생산성경영시스템(PMS) 인증제도'는 정부가 비용의 60%를 지원해 전문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진단, 컨설팅, 교육,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돕는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해 지원한 4개 중소기업업체가 PMS 인증을 취득해 경춘선 고속화사업, 경전선(삼랑진~진주) 복선전철사업 등을 차질 없이 개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올해에도 철도사업에 참여한 중기업 수 50인 이하 업체로서 워크아웃이나 부도 우려가 없고 일정 수행능력을 검비한 5개 업체를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들 업체에 대해 11월까지 PMS 인증취득을 목표로 지난 9월 7일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진 바 있으며 영세기업의 철도기술력 향상을 위해 업체당 소요비용 400만원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40%)을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 생산성경영시스템(PMS) 인증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협력사와 관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철도건설사업의 품질·안전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2년 하반기 철도안전 홍보캠페인

- 국토부·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 공동 시행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지난 9월 19일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용산역을 비롯한 전국 5개 역사와 안전취약 건물목 등에서 철도안전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공단은 철도안전 홍보기념품을 시민들에게 나눠 주면서 철도건널목 안전수칙 준수, 철도보호지구 내 무단행위 금지 등을 당부하며 국민들의 철도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여 철도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벌였다.

한편 공단은 올해 상반기에도 철도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철도안전 홍보캠페인을 시행했으며 이 같은 노력으로 '06년 26건이었던 철도건널목 사고가 '11년에는 14건으로 감소했다.

철도건설 현장 추석 대수송 대비 안전점검

- 전국 284개 철도건설현장 집중점검 및 시정조치 -

경영지원안전실(실장 이계환)은 추석 대수송(9.28~10.3)을 대비해 열차 운행선 안전운영 확보 및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84개 철도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단, 철도공사, 감리단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공단은 연인원 874명을 투입하여 태풍으로 인한 강풍과 집중호우에 노출된 연약지반 및 대규모 질개지 43개소, 열차운행선 인접 76개소, 도로통과 87개소, 지하굴착공사 32개소 등의 안전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중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237건에 대해 안전시설 정비 150건, 법면 및 배수로 정비 82건 등의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공단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 전국 모든 철도건설현장의 외부인 출입통제,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정비, 비상근무자 공사장 순회점검,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열차운행선 인접구간을 포함한 전 철도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석 대수송 대비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개인 포상금 쾌척



영남본부 건설처 박재운 차장은 대외 수상 포상금 350만원을 부산 중구노인복지관에 기탁했다.

박재운 차장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과정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주거 환경이 열악함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청이 주관한 '2012년 대·중소기업 기술 협력대상'에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지원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상 포상금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노인복지관에 기탁하여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

2005년부터 자매결연을 맺고 홀몸노인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영남본부는 그간 자체 모금한 400만원 또한 추석 전에 중구노인복지관에 기탁하고, 400세대 홀몸노인들에게 추석선물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